

고창경제 지킴이! 고창사랑 상품권

[고창사랑 상품권]은 고창군이 발행하는
지역화폐로 고창 돈이 군민들 사이에서
돌게 만들고 지역에서 식당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 서로 도움을 받게하는,
지역경제의 새로운 활력소 입니다.



「고창사랑 상품권」은
3종(1천원권, 5천원권, 1만원이며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고창사랑 상품권」 사용안내

사용 방법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에서 상품권을 구입합니다.
※ 관내 모든 금융기관(우체국 제외)
-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에서 사용가능하며 상품권 액면가의 70%이상 사용시 잔액은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 혜택

- 구매자 : 상품권 액면가액의 5%할인
- 가맹점 : 상품권을 받을 경우 카드 수수료 절감

사용 대상

- 「고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스티커가 부착된 업소에서 사용 가능

「고창사랑 상품권」 가맹점 안내

신청 안내

- 신청 : 상시 신청 가능
- 신청장소 : 고창군청(상생경제과), 읍·면사무소
- 지참서류 : 가맹점 지정신청서, 사업자등록증
- 지정방법 : 가맹점 신청 후 가맹점 지정서 및 스티커 교부
※가맹점은 수수료 없음

환전 신청

- 가까운 판매대행점(금융기관)을 방문하여 환전신청
- 지참서류 : 신분증, 본인 통장
- 환전기간 :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3일 이내

준수 사항

- 상품권 사용 거부 금지
- 상품권은 현금 거래자와 동등 거래
- 상품권의 위·변조 확인 의무



가자! 바다로...더위 잡으러 '풍덩!' 올 여름 휴가는 구시포·동호 해수욕장에서!

무더운 여름 내리쬐는 태양빛을 피해 지친 몸과 마음을 자연 속에서 달래고 싶다면 한반도 첫수도 고창의 구시포·동호해수욕장으로 달려가자.

고창군 상하면의 구시포해수욕장은 고운모래가 심리에 걸쳐 펼쳐지고 송림이 우거져 오토캠핑과 가족단위 캠핑장소로 제격이다. 백사장 앞에는 손에 잡힐 듯한 가막도가 있고, 발밑으로는 고운 금모래가 펼쳐져 안전하고 쾌적한 최적의 해수욕장 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변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와인글라스(wine-glass) 형태의 구시포항이 개발돼 멋진 등대와 함께 이국적인 풍경을 자아낸다.

해리면 동호해수욕장은 완만한 경사의 모래사장과 갯벌이 어우러져 알은 수심으로 어린이도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백사장 뒤쪽으로 가지런히 서있는 아름드리 소나무가 그늘을 만들고 한여름에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 가족단위 방문객이 많이 찾는다.

동호해수욕장 옆 하전어촌체험마을의 갯벌체험도 빼놓을 수 없다. 물이 빠지면 1km이상 드러나는 널찍한 갯벌에서 봄부터 가을까지 바지락·동죽 등 조개류와 돌게·고동 등을 채취할 수 있다. 모래와 펄이 섞인 갯벌이어서 발이 잘 빠지지 않아 어린이를 포함한 온가족이 어렵지 않게 조개류 채취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다.



조개류는 호미 등으로 갯벌을 파서 채취하고 돌게나 고동은 바위자락에 지천으로 깔려 있어 주워 담으면 된다.

고창군 해양수산과 관계자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각종 시설물을 정비해 불편함이 없는 여름 힐링 공간으로서 손님맞이에 나서겠다”며 “고창 해수욕장에서 온가족이 함께 드넓은 바다와 갯벌을 조망하며 편안히 쉬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변 먹거리



■ 풍천장어

바닷물과 강물이 어우러지는 지점에서 바다에 물이 들어올 때 육지로 바람을 불고 들어온다 해서 풍천장어라 이름 붙었다. 육질이 담백하고 쫄깃한 게 특징이다. 고창에선 지역 특유의 양념과 조리법을 가진 각 음식점들이 저마다의 비법으로 장어구이를 내면서 전국적으로 소문난 장어 요리촌을 만들었다.

■ 바지락칼국수 / 바지락비빔밥

전국 최대산지에서 바로 맛보는 ‘고창 바지락 칼국수’는 싱싱하고, 살이 통통한 바지락을 듬뿍 넣어 깊은 맛을 낸다. 적당히 짭짤하고 텃맛은 시원하다. 해풍을 맞은 청양고추를 썰어 넣어 기분 좋은 듯한 매운맛도 있다. 적당히 간이 밴 면발은 쫄깃하고 국물은 구수해 순식간에 한 그릇을 비우게 된다. 살짝 데친 바지락에 고추장을 비벼 먹는 바지락비빔밥도 일품이다.



주변 숙박

■ 전북형 농촌관광거점마을-고창강선달힐링센터

구시포항의 노을을 보고, 상하농원의 각종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자리에 고창의 명품 농촌관광마을이 들어섰다. 지난 4월 문을 연 강선달힐링센터는 각종 해양 체험프로그램과 농산물판매장 등이 들어서 관광객에게는 잊지 못할 추억을, 주민들에게는 적지 않은 소득창출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객실도 4인실, 6인실, 8인실을 갖춰 최대 90여명이 체험과 숙박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문의 063-563-6337

■ 힐링과 가족지향 -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

지난해 6월 문을 연 상하농원 파머스빌리지는 ‘농부의 집’을 테마로 한 호텔급 휴양시설이다. 자연친화적인 느낌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 객실내부에 벽지, 석고보드,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았다. 특히 고창에서 나는 신선한 식재료로 차려진 조식 뷔페 ‘파머스테이블’에서 즐기는 아침 식사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문의 063-563-6611



‘빨간 맛의 유혹’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 성황리에 마무리

복분자, 수박 농산물 판매 7억 5000만원 (전년대비 7% ↑), 전국에서 16만명 (전년대비 5% ↑) 방문 인기

“물총싸움, 수박 빨리먹기 등 다채로운 체험으로 온 가족이 즐기는 여름 대표축제로 자리매김”



고창 대표 농산물인 복분자와 수박을 테마로 열린 ‘제16회 고창 복분자와 수박축제’가 선운산도립공원 일원에서 지난 6월21~23일(3일간) 군민과 관광객 등 총 16만 여명(전년대비 5%증가)이 찾은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이번 축제에는 여는 마당부터 특별했다. 고창 복분자와 수박을 소재로 한 기획마당극을 농악보존회에서 선보여 관광객에게 재미와 추억을 떠오르게 했다.

농산물 축제에 맞춰 축제장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여름철 건강을 책임지는 복분자와 수박을 시중가보다 30%저렴하게 판매했다. 행사기간 총 판매액은 7억5000만원(전년대비 7%증가)을 기록했다. 여기에 수박을 주차장까지 배달해 편리하게 찾아가 수 있도록 배달 카트를 운영해 구매한 관광객에게 호평을 받았다.

수박을 활용해 아름다운 조각의 경치를 보여준 제2회 전국수박가빙대회는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더위도 잊게 만드는 복분자와 수박캐릭터와의 시원한 물총싸움, 수박빨리 먹기 대회 등 다채로운 체험행사로 시끌벅적한 흥겨운 축제 한마당으로 펼쳐졌다. 축제장에서 만나는 다양한 캐릭터 연기자나 건네는 달콤한 복분자 사탕과 젤리는 더위에 지친 방문객들을 미소 짓게 했고, 아이들을 위한 환상의 비누방울·요술 풍선쇼는 환호성이 끊이지 않았다. 고창복분자와 수박축제 준비위원회 이문식 축제 위원장은 “고창을 대표하는 복분자와 수박을 가지고 오감 만족할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창 농산물을 구입하신 관광객에게 감사드리며 더 발전된 농산물 특화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이것이 농촌영화다’.. 제2회 고창 농생명영화제 열려

개막작 ‘여름이 준 선물’ 이영재 감독. “고창만큼 순수한 농촌의 풍경 담아낼 곳 드물어”

전 세계의 농촌영화를 한 곳에서 만나 볼 수 있는 ‘제2회 고창농생명영화제’가 지난 6월20~23일까지 부안면 복분자클러스터 특설무대에서 열렸다. ‘내 마음의 풍금’ 개봉 20주년 특별상영을 비롯해, 애니메이션과 단편영화를 통해 한·중·일의 70~80대 농촌풍경을 만나보는 시간도 마련됐다.

특히 ‘농부가 직접 만든 농촌영화’도 관심을 끌었다. 경북 상주 박동일 감독의 ‘산촌에 간 아가씨들(35분)’, 경기 용인 황동욱 감독의 ‘샘밭이 야기(17분)’, 충남 서천 노영미 감독의 ‘태모시(15분)’, 전북 군산 나종식 감독의 ‘고추이야기(7분)’, 전북 임실 한미연 감독의 ‘비운뒤(15분)’ 등 5편의 작품이 상영됐다. 이 외에도 ‘사탐살려 고창토종씨앗 연구회’와 함께 ‘농부, 토종씨앗을 말하다’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농촌인문학 강좌가 진행됐다. 고창군수는 “고창에서 만나는 대한민국 대표 농·생명영화를 통해 우리 농촌 풍경을 이야기하고 그 소중함을 지키며 농부의 현재와 미래를 만들어가는 영화제로 성장할 것을 기대해 본다”고 말했다.



고창 농생명 영화제 화제의 현장!

■고창사람들의 진짜 고창이야기- 고창 단편영화의 밤

이번 ‘제2회 고창 농생명 영화제’에선 다른 어느 영화제와의 다른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봉만대, 김대현, 임성운, 조은성 등 한국 영화계를 주도하는 감독들과 청년들이 영화제 기간 동안 고창군의 마을 곳곳을 돌아 다니며 제작한 영화가 특별 상영됐다. ‘데디!액션!’은 성송면 판정마을 안옥주 농부가 마을 입구의 석산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이야기를 담았다. ‘어느 날 대박’은 이기령 청년감독이 부안면 용산마을에서 한 시골 농부가 밭고랑을 파다가 오래된 총기 하나를 발견해 겪게 되는 에피소드를 코믹스럽게 풀어냈다. ‘대섬이야기’는 고창 부안면의 죽도에서 태어나 자란 주민들의 이야기를 다루며, 젊은이들이 빠져나간 쓸쓸한 섬마을의 풍경을 담아내기도 했다.

■고창에서 찍은 영화 - ‘내 마음의 풍금’ 개봉 20주년 특별상영

“고향 같은 영화, 동화책같고, 잡자리에서 엄마가 해주시는 옛날이야기 같아요.” 20년 전 이영재 감독이 고창군 고수면 조산분교에서 찍은 ‘내 마음의 풍금’의 개봉 20주년 특별상영이 열렸다. 영화는 시골학교에서 수줍은 사랑을 고백하지 못하는 소녀 홍연(전도연)과 남자 선생님 강수하(이병헌), 여자 선생님 양은희(이미연)의 묘한 사랑의 삼각관계를 서정적으로 담아냈다. 관객들은 썸 고구마와 옥수수를 먹으며 초여름밤의 영화 관람을 즐겼다. 특히 지금은 흔적만 남아있는 고수면 조산분교와 인근마을이 스크린에 보이자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고창군의회, 제264회 1차 정례회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지난 6월 26일 제4차 본회의를 열어 제264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차남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에 대한 반대 건의문」을 채택하였으며, 이경신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농번기 농업인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안」과 함께 호국보훈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8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2018 회계연도 결산 승인 의 건, 2018 사업년도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 승인 의 건을 심사하였으며 부서별로 예산집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효율적인 재정운동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또한, 지난 6월 18일 1차 본회의에서 김미란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고창군 추모의집에 지역 내 800여 국가유공자들의 유골을 봉안할 수 있는 국가유공자의 봉안실을 만들어 무료로 봉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6월 18일과 25일 양일간 실시한 군정질문 및 답변에서는 4명의 의원이 질문자로 나서 임정호 의원은 △황토정정고구마웰빙산업화 육성사업 △고창 수박향토산업 육성사업(보조금)△경로당 청소도우미 일자리사업, 이경신 의원은 △부창대교 건설 의 건 △고창읍사무소 신축 의 건, 이봉희 의원은 △드론 전용 비행시험장 유치 △부안면 질마재 시인마을 관광조성사업 △인구 감소 대책, 조민규 의원은 △한빛원전에 대한 전문가 채용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 분쟁해결과 분양에 대한 대책 △군의회 청사 신축 관련 △고인돌공원과 운곡습지 활성화 방안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등 다양한 군정현안과 관련 질의응답을 통해 군정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군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 군정질문·답변에 대한 의정활동 동영상 제작해 TV로 방송 할 계획이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동료의원님이 제시하여 주신 대안과 고견에 대해서는 철저한 검토와 보완을 통해 군정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고창군의회 ‘정읍시의회 동학농민혁명 건의문’ 역사적 왜곡에 강력 반발

전북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는 6월 18일 건의문을 통해 정읍시의회가 대통령 등에게 제출한 건의문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은 무장기포가 아닌 고부봉기이며, 무장기포라고 서술한 교과서는 왜곡된 역사’라는 주장은 억지 논리이며, 역사적 왜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달 5월 31일 정읍시의회는 「동학농민혁명 특별법 개정 및 교과서 오류 수정 촉구 건의문」을 통해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 봉기로 명시하라’고 주장하며, 국회에 관련법 개정 및 교과서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창군의회는 “역사의 진실은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여야 함에도 이를 부정하고 정읍시의회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정부로 하여금 역사교과서의 수정을 요구하는 것이 오히려 역사 왜곡을 종용하는 것에 다를 바 없으며, 역사를 정치화하겠다는 것이다.”라고 강력히 반발하였다. 또, “고부 농민 봉기는 1894년 1월 탐관오리인 조병갑의 수탈과 폭정에 저항하기 위해 고부 지역 농민들이 벌인 봉기일 뿐”이며, “정읍시의회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내용은 사발통문은 이에 맞는 형식을 갖추지 못하고 있어 통문인지 여·부 뿐만 아니라 기록된 내용 또한 고부봉기에 대한 내용인지에 대하여도 학계의 해석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에 “『2020년 새 역사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의 시작을 고부농민봉기로 명시하라.』는 정읍시의회의 주장이 역사의 왜곡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하였다.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 한빛원전 1호기 수동정지 현장 확인



고창군의회 한빛원자력발전소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임정호)는 6월 12일 최근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와 관련하여 현장을 확인하고 고창군민들의 안전문제에 대한 지역 여론을 강력히 전달하기 위하여 한빛원자력 본부를 방문하였다.

한빛원전 1호기는 5월 10일 모터구동 보조급수펌프가 자동 기동돼 원자로 열출력이 기준치인 5%를 초과하여 18%까지 급증하였음에도 12시간 가까이 더 가동한 후 원자로가 수동정지하여 군민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였다. 위원들은 한빛원전 1호기 원자로 수동정지 원인은 아주 기본적인 매뉴얼을 지키지 못해서 발생한 사고라며, 군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문제가 된 한빛원전 1호기는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중단할 것과 즉각적인 안내문자 발송, 전산시스템 보완 등을 요구하였으며, 원전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비상시 주민들에게 빠른 시간에 전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원전안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홍보하라고 촉구하였다. 조규철 의장은 “이번을 기회로 삼아 한빛원전에 대한 군민의 막연한 불안감을 지우는 신뢰회복이 필요할 때”라면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당연한 것이고, 고창군민의 정신적인 안전에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하였다.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위촉

고창군의회(의장 조규철)가 지난 25일 의장실에서 ‘고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 7명을 위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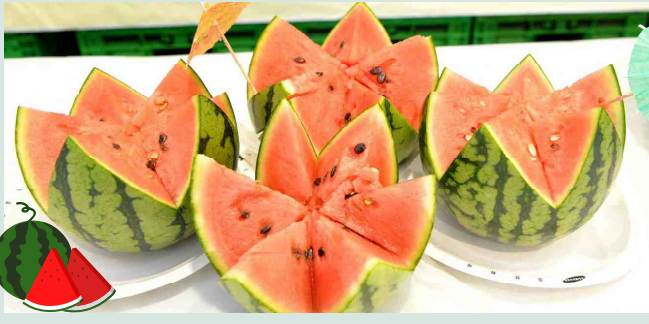
심사위원회는 교육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5인과 고창군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사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김성규 위원(전북일보)으로 선출되었다. 조규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이 군민들에게 부정적 이미지로 비추어지고 있다”면서 “심사위원회에서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철저히 검증하여 국외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주민 신뢰를 높여달라”고 말했다.

“혼자서 수박 한통은 기본이죠” 1인 가구 맞춤형 ‘고창 애플수박’이 뜬다

애플수박 본격 출하..관내 30여 농가 재배 “전국 생산량 절반 이상 차지”
“당도가 높고 씹는 맛이 아삭아삭하며 무엇보다 크기가 작아 1~2인 가구에 인기”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고, 성인 남자가 한손으로 가뿐히 들어 올릴 수 있는 수박. ‘고창 애플수박’이 2019년 대한민국 여름 과일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여름철 과일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고창애플수박은 관내 30여개 농가가 48ha에서 재배하고 있다.

작목반은 올 생산량을 2000톤 정도로 전망하고 있다. 기존 수박은 혼자 먹기엔 양이 많고 음식물쓰레기도 많이 나와 치우기 번거롭다. 애플수박은 기존 수박의 4분의 1크기로 미니수박으로도 불리며 최근 늘어난 1인가구 소비 트렌드와도 맞아 떨어져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특히 높은 당도는 물론 육질이 뛰어나 맛이 좋으며 껍질이 얇아 사과처럼 깎아 먹을 수 있어 간편한 간식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고창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GS리테일은 물론, 이마트, 옥션 등 대형유통업체도 고창군과 애플수박 납품계약에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탐스런 체리의 붉은 유혹, 고창체리 본격 출하



고창 12개 체리농가, 시행착오 거듭하며 달콤한 고창 명품 체리 재배 성공
고창 황금지농원서 고창체리 현장 평가회 열려.제왕, 홍수봉, 블랙골드 등 대표품종 전시

새콤달콤한 맛과 식감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고창 체리가 본격 출하를 시작했다. 지난 6월18일 오후 고창 황금지농원에서 고창체리 현장평가회가 진행됐다. 고창 체리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등 관련기관 전문가와 전국의 체리전문지도사 등 200여명이 함께했다.

평가회는 고창지역에 잘 적응된 ‘제왕’, ‘홍수봉’, ‘블랙골드’ 등의 대표품종이 전시됐다. 고창 체리는 관내 12개 농가가 시행착오를 거듭하며 명품 체리를 만들어냈다.

특히 수정 이후 농약을 살포하지 않아 친환경 과일인 고창체리는 과육이 두껍고 단맛이 나는 수입산 체리에 비해 달짝 하면서도 새콤한 맛이 강하다. 이로 인해 입맛이 개운하고 저장성과 식감이 좋아 남녀노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여름철 과일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영양 만점 고창양파, 우리가 사줍시다” 고창군, 양파 팔아주기 행사 열어



고창군이 양파 가격 폭락으로 시름이 깊은 지역 농민들을 위해 ‘고창양파 우리가 사주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고창군이 지난 6월25일 오후 고창군 황토배기유통센터 집하장에서 고창군수를 비롯해 교육청, 경찰서, 농협 등 유관기관장, 지역 사회단체 대표 등 2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30여 톤(시가 1350만원 상당)의 양파 구입 행사를 열었다.

현재 수확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고창양파는 지난해에 비해 재배면적과 생산량의 증가로 가격이 하락해 재배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창양파는 품질이 좋은 종자를 사용하고 서해안의 해풍을 맞고 자라 병충해에 강하며 맛이 매우면서도 단맛이 나고 육질이 단단해 저장성이 좋다.

고창군수는 “군민이 우리 농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파 1방 사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며 “우리 농민들에게 의욕과 희망을 주고 농촌경제를 살리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귀농 고창으로 갈래~” 고창군, 지난해 귀농인구 전국 1위

2018년 기준 귀농귀촌 국가통계..고창군, 지난해 귀농인 189명 정착 전국 1위

전북 고창군이 전국에서 귀농인이 가장 많이 정착한 곳으로 조사됐다. 고창군은 전국적인 귀농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예비농민들을 지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귀농·귀촌인 통계결과’를 보면 고창군은 지난해 189명의 귀농인이 정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국 228개 기초자치체 중 귀농인 규모 1위로, 국가통계에서도 ‘농생명식품수도, 귀농1번지 고창’의 위상이 확인된 셈이다. 고창군에 귀농인이 많은 이유는 멘토단 운영,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등 특화된 귀농귀촌 정책을 펴면서 귀농인의 초기 실패를 줄이는 데 집중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상반기 문을 연 ‘고창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예비 귀농귀촌인이 10개월 이상 실제로 생활하면서 영농교육, 창업교육을 받고 구체적인 귀농귀촌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또 복분자를 비롯해 수박, 체리, 멜론, 망고 등 다양한 특화 작목을 재배하는 이들이 많아 “농사 외에도 농사를 지으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입소문에 예비 귀농인들이 몰려들고 있다. 고창군수는 “고창군은 지역 전체에 분포돼 있는 고인돌과 고분군을 보듯 수 천년 전부터 살기 좋은 곳으로 명성을 떨쳐 왔다”며 “최근에는 귀농귀촌인들을 위한 소득 사업과 다양한 인문교육 등이 조화를 이루면서 귀농귀촌의 1번지로 자리를 확고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나눔과 봉사 기부천국 고창

[고창 한센인의 어머니] 강 칼라 수녀, 나눔의 삶 50주년 행사 열려



반 세기가 넘는 시간동안 나눔의 삶을 살아온 '고창 한센인의 어머니' 강칼라 수녀의 축하 행사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6월8일 고창군 호암마을 야외공연장에서 천주교 전주교구 김선태 주교의 주례로 강칼라 수녀(Tallone Lidia·76세)의 50주년 축하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기념미사와 수녀님과의 대화, 퓨전 국악 공연 등이 다채롭게 진행됐다.

이탈리아 출신인 강칼라 수녀는 1962년 작은자매관상선교회에 입회해 1968년 한국에 파견됐다. 이후 50년 넘게 한센인 정착촌인 고창 호암마을에 머물면서, 한센인들의 마음을 사랑으로 보듬어왔다. 또 노숙자와 윤락여성 등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도 함께해 '푸른 눈의 천사'로 불렸다. 강칼라 수녀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2016년 국민훈장 모란장을, 지난해엔 호암상 사회봉사상을 받았다. 강칼라 수녀는 요즘 마을 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사업으로 도자기 만드는 일을 하면서 마을을 체험 장소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국회에서 전시회도 열린 '호암마을 도자기'는 어르신들이 대부분인 지역 공동체에 생기를 불어넣으며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강칼라 수녀는 "호암마을 주민들을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삶의 기쁨을 얻고 행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왔다"며 "함께 걸어온 이 길을 남은 여생도 어려운 이웃을 돌보고 나눔을 실천하면서 살겠다"고 전했다.

"한반도 첫수도 고창서 성공대회 이끈 미소천사들 만세"

고창군, 도민체전·장애인체전 자원봉사단 해단식 열려..군민 유공자 69명, 공무원 48명 표창

"여러분이 있어 고창이 더 빛날 수 있었습니다"

역대 최고의 대회로 호평을 받은 전북도민체육대회와 전북장애인체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고창지역 자원봉사자가 한자리에 모였다. 고창군이 지난 6월24일 오후 고창 청소년수련관 1층 청소년극장에서 고창군수와 주요 내빈, 자원봉사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체전 자원봉사단 해단식을 열었다. 행사는 평가보고를 시작으로 대회 하이라이트 영상 상영, 유공자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유공자 표창식에서는 대회 성공개최 및 종합 3위 달성 등 투철한 봉사정신을 아끼지 않은 자원봉사자, 유관기관 관계자를 비롯한 군민유공자 69명과 공무원 48명이 큰 박수와 함께 표창을 받았다. 고창군수는 "두 대회에서 제2의 선수로 성심을 다해 뛰어준 자원봉사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며 "대회는 끝났지만, 우리의 희망과 꿈인 '한반도 스포츠 수도'로의 도약이 이제부터 시작인만큼 멋진 고창군 자원봉사자들이 함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표창대상자(일반인) : 박상현, 박원석, 김덕희, 강복남, 송재웅, 문형진, 김민정, 이양금,김진갑, 이한나, 강나형, 이동운, 이임선, 김란, 추삼순, 김원식, 김희정, 류관식, 이진우, 임태호, 한해옥, 김은주, 권미자, 정정식, 정민교, 김부영, 안병우, 김운자, 김영석, 박진배, 이창구, 김연주, 이학중, 김민성, 유미옥, 박용구, 최선재, 유문식, 최고효, 성순자, 이혜숙, 김명순, 홍신자, 김선미, 서미순, 김영진, 임채선, 홍성문, 김하영, 김경희, 마정호, 김성기, 홍봉석, 함병삼, 고석규, 김완수, 홍성주, 이백우, 임재옥, 강종원, 고현남, 서순애, 김병도, 김상현, 서완석, 홍은자, 김영기, 이희중, 이승수



고창군 무장면 '사랑의 저금통'사업 추진..나눔문화 확산



고창군 무장면이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사랑나눔 행복기부 캠페인-희망저금통' 사업을 시작한다. 사랑나눔 행복기부 캠페인-희망저금통'은 무장면 관내 모든 경로당 42곳에 저금통을 설치하고, 장보고 남은 잔돈 등을 기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무장면은 올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가정 등 어려운 가정의 지원을 위해 1인1계좌 갖기, 착한가게, 착한가정 정기기부 등 활발한 이웃돕기 성금 모금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북경반점·성송면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짜장면 나눔 행사



북경반점(고창읍 소재)과 성송면 새마을부녀회(회장 고현남)가 6월17일 11개 마을 어르신 150여명을 모시고 짜장면을 무료로 대접하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짜장면 무료 나눔행사는 삼태마을 광장에서 진행됐으며 북경반점에서 출장요리를 하고 새마을부녀회원들이 음식을 나르며 어르신들이 불편해하지 않도록 정성껏 봉사했다. 북경반점은 매년 수차례에 걸쳐 불우시설, 어르신 등 소외계층에게 짜장면을 무료로 대접하고 있다.

봉사단체 '행복한 심원면',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 쾌척



고창 지역 봉사단체 '행복한 심원면(회장 유삼경)'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지난 6월10일 이웃돕기 성금 2000만원을 고창군 심원면에 전달했다.

이번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심원면 관내 저소득 청소년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등에 지원될 예정이다. '행복한 심원면'은 심원면이 고향인 회원들이 친목도모와 고향 발전을 위해 2016년 결성된 단체로 지난해까지 독거노인 응급전화기 설치사업, 청소년 장학금 지원사업, 저소득층 집수리사업,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성금 지원 등의 사업에 6700만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폭염대비 쿨매트 지원



고창군 신림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민간위원장 문원애)가 지난 18일 폭염대비 독거어르신과 취약계층 10세대를 발굴해 시원한 여름나기를 위한 쿨매트를 지원했다. 그간 신림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쿨매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들이 대상자 가구를 직접 발굴하고, 방문해 지원하고 건 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왔다.

고창군 기부천사 딸기연구회 훈훈한 이웃사랑 감동



고창군 딸기연구회가 딸기 300kg을 고창군장애인복지관, 신림면사무소에 기부하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했다.

기탁된 딸기는 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군민의 간식으로 제공되며 관내의 어려운 이웃에게도 전달될 예정이다.

기업탐방

고창에서 기른 꽃차, 아코티

국내 최초 꽃차 전문공장 “1만 여평의 꽃 재배면적..특수한 건조시스템 보유”

고창군 아산면에는 직접 농사지어 기른 자연의 수제꽃차, 명품 수제만을 고집하는 기업이 있다. 식용 및 약용 꽃을 이용한 꽃차 및 꽃차를 개발하는 ‘주식회사 아코티’이다. 2014년 설립된 아코티는 귀중한 부부가 채집부터 생산, 가공, 포장, 배송까지 100% 수작업으로 제품을 제작한다.

아코티의 주요 제품은 꽃차이다. 박하국화차, 목련꽃차, 당아욱꽃차, 등이 대표제품이다. 박하잎과 동국화를 블렌딩해 숙성시킨 박하국화차는 국화의 구수하고 향긋한 맛과 박하의 깔끔한 맛이 더해져 선호도가 매우 높고, 맛이 진하고 깔끔해서 차를 무난히 접하고 싶은 사람에게 제격이다. 목련꽃차의 목련은 청정지역 고창에서 재배된 목련으로 얻은 생강맛이 난다. 해당화꽃차는 맛도 향기도 부드러운 장미향이 나는 차이다.

이외에도 약 18가지 종류의 차를 생산하고 있어 취향에 따라 차를 선택해 접할 수 있다. 이외에도 매화꽃차, 바다꽃차, 아카시아꽃차, 구절초꽃차 등 보기에도 예쁘고 건강에도 좋은 다양한 종류의 꽃차를 생산중이다.

아코티는 2017년 7월 공장 2개동을 신축하였고, 2018년에 일본수출을 추진하였으며, 최근에는 롯데백화점, 갤러리아백화점에 입점했다. 이외에도 인터넷쇼핑몰에서도 판매중이다.

권오민 대표는 2018년 세계신지식인협회로부터 경영혁신대상 수상, 제2회 전국 브랜드 지식농업인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수상 등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해 농업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위해 노력중이다. 권오민 대표는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과 6차 산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해내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 TEL : 070-7736-2907

○ 홈페이지 : <http://acotea.cafe24.com>

고창군일자리지원센터

취업상담 및 직업훈련을 통해 구직자와 구인업체 연결,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구인/구직자 개인별 상담 및 DB 구축

취업 알선에 따른 구인처 정보 제공

일자리 상담 : 상생경제과 일자리창출팀(☎063-560-2366)

| 연번 | 업 체 명 | 인원 | 모 집 직 종 | 근 무 조 건 | 마감일 | 근무지 |
|----|---------------|----|--------------|---|------|-----|
| 1 | 농업회사법인 흥림 | 1 | 온라인마케팅 직원 |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9:00~18:00 (재택근무가능자우대) | 채용시 | 고창읍 |
| 2 | 현대고장서비스 | 1 | 경리사무원 | 월급 175만원 주5일근무/08:30~18:00 | 채용시 | 고창읍 |
| 3 | 석정힐스 입주자 대표회의 | 2 | 아파트관리원 | 월급 185만~219만원 경리근무제 (07:00출근) 중식미제공.정식시간배정 | 채용시 | 고창읍 |
| 4 | 라운지장어집 | 5 | 보육교사/조리원/운전원 | 월급 보육사업지침준용 주5일근무/08:00~18:00 | 7.30 | 부안면 |
| 5 | 라운푸드시스템(주) | 30 | 생산직 | 시급 8,350원 주5일근무 (일요일~목요일) / 08:00~17:00 연장근무가능자, 출퇴근자량보유 | 7.30 | 부안면 |
| 6 | 라운푸드시스템(주) | 2 | 사무직(남,여) | 월급 180만원 주5일근무/08:00~17:00 | 7.30 | 부안면 |
| 7 | 이앤지푸드(주) | 1 | 공무책임자 | 연봉 3,000~4,000만원(협의가) 주5일근무/08:30~18:00 | 7.20 | 부안면 |
| 8 | 이앤지푸드(주) | 5 | 생산직 |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8:30~18:00 | 채용시 | 부안면 |
| 9 | (유)도건 엔지니어링 | 1 | 자재및공무 사무원 | 월급 200~400만원 주6일근무(월일)08:00~18:00 (토요일)08:00~18:00 *면접후합의가 | 채용시 | 홍덕면 |
| 10 | 대경스틸 산업유식회사 | 2 | 철강제품생산직 | 연봉 3,500만원이상 주5일근무/09:00~18:30 *적극토요일근무* | 채용시 | 홍덕면 |
| 11 | 매일유업 | 1 | 지게차운전원 | 월급 185만원이상 주5일근무(3개월근무후) 1선 06:30~14:30 2선 14:30~22:30 3선 22:30~06:30 교대근로및야간근로, 유급근로가능자 | 7.15 | 상하면 |
| 12 | 해동영아조발법인 | 3 | 생산직 | 시급 8,350원 주5일근무/09:00~18:00 | 채용시 | 심원면 |
| 13 | (주)고창기업 | 1 | 콘크리트수리관 생산직 | 시급 8,350~10,000원 주5일근무/08:00~18:00 | 채용시 | 아산면 |

사서추천- 함께 읽고 싶은 책

일반도서



고창인물기행

이종근 / 지역 / 2019

군립도서관

고창사람이 쓴 고창의 첫 인문학도서가 나왔다. 고창에서 태어난 이종근 작가(사전 북산문 부국장)가 30여 년 동안 연구하며 찾아낸 결과물이다. 저자는 보리 피리를 잘라 고창에서 하룻밤만 묵어도 천년의 세월이 깃들었다고 했다. 이종근 이름이 새겨진 무장 고인돌, 선운사 사천왕상의 탑관외와 읍내, 무장을 성 정후권 영세불망비와 꽃병, 동학농민군이 부른 당포골 민요 등 흥미로운 이야기가 가득하다. 이밖에 황윤석이 석실서원을 찾은 이유, 모로모로 탐방열차는 언제 왜 놓였나, 김유신을 형사하는 남산사 등도 소개. 역사와 인문학의 만남이 펼쳐진다.

7월 고창(高敞)의 인물

최정구(崔鎔九, 1850~1938, 호는 지은(智隱))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에서 태어난 최정구는 1905년 을사조약으로 국권이 상실되자 이에 분격해 이듬해 최익현이 정읍 태인지역에서 일으킨 의병에 가담했다. 이후 최익현 의병대가 순창에서 패전한 뒤 최익현과 함께 대마도(對馬島)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난 뒤에도 항거를 계속했다. 1910년 왜적의 침략 행위를 심대죄목(十大罪目)으로 규정하고 일본의 군왕에게 통고문을 보내려다 체포됐다. 이후 옥지도(獄島)에 1년간 유배됐다. 1911년 동지들을 규합해 광복단(光復團)을 조직하고 의금부순찰사로 활동하다 1917년 12월28일 붙잡혔다. 이로 인해 다시 영종도(永宗島)에 1년간 유배됐다. 1918년 고종이 즉자단식 투쟁을 하는 등 10여 차례에 걸친 구건(拘檢)과 2차례의 유배 생활 끝에 1938년 8월 고창군 성송면 학천리 독산재(獨山臺)에서 사망했다. 최정구는 고종이 승하하자 지어 매월 초하루와 보름날에 한양을 향해 독산재에서 망곡례를 올리기도 했다. 저서로는 남정복과 유교 4권이 있다. 정부에서는 고인의 공훈을 기리어 1977년 건국포장, 1990년 애국장을 추서했다.



고창군-전북대 이재연구소, 이재 황윤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 학술대회 성황리에 열려

- 생애와 학문편력, 가족에 대한 사랑, 이재난고의 지식학적 의미 등 학계 집중조명

고창군과 전북대학교 이재연구소(소장 한문종)가 6월21일 고창이 낳은 조선 후기 대표 실학자 이재 황윤석 선생의 학문과 사상을 조명하는 학술대회를 열었다.

전북대 하우봉 교수가 '백과전서과 실학의 거목, 이재 황윤석'의 기조강연으로 문을 열었고, 이어 ▲이재 황윤석의 생애와 학문편력(권오영 교수) ▲월주가를 통해 살펴본 황윤석의 가족에 대한 사랑(이상봉 교수) ▲이재 황윤석의 서행일기에 나타난 18세기 지식과 지식인들-이재난고의 지식학적 의미(김승룡 교수) ▲이재 황윤석의 백양사 학술 활동 및 고류(박순철 교수) ▲이재 황윤석의 성리학과 성리대전(최영성 교수) ▲이재 황윤석의 박학적 학문 경향과 자연학(구만욱 교수) ▲이재난고의 부풍향차보와 선운사 티스토리(손영란 박사) 등 다양하고 유익한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금까지 이재 선생에 대해 연구해 온 연구자들이 중심이 돼 이재 황윤석의 다양한 학문과 사상을 심도 있게 다뤘다. 특히 이재 황윤석이 태어나 활동한 고창에서 학술대회를 열면서 조선 18세기 대표 이재 황윤석을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자긍심을 높이고, 이재 황윤석 연구에 대한 저변을 확대한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미가 있다. 이재연구소 한문종 소장은 “이재 선생의 업적을 재조명하는 학술대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재 선생의 사상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 '보물' 됐다

고려말~조선초의 유일한 석조지장보살, 두건 지장 도상 정확히 구현
고창군 보유 국가지정문화재 26점으로 늘어..“품격높은 문화유산의 도시 자긍심 높아져”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高敞 禪雲寺 懺堂庵 石造地藏菩薩坐像)’이 6월26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 제2031호로 지정됐다.

불상은 1973년 6월23일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3호 ‘선운사 약사여래불상’으로 지정된 이후 두건과 목걸이 장식, 보주(寶珠)를 든 모습 등 전체적인 특징이 재검토돼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으로 명칭을 변경해 보물의 지위를 갖게 됐다. 고창 선운사 참당암 지장전(地藏殿)에 봉안된 지장보살좌상은 두건과 섬세한 얼굴 표현, 양쪽에서 드리워져서 여의두(如意頭, 승려가 독경(讀經)하거나 설법(說法)할 때 사용하는 도구로 ‘마음 심(心)’자 모양을 표현한 고사리 모양의 문양 장식)형태로 마무리된 띠 장식과 보주를 든 모습, 치마를 묶은 띠 매듭 등 구체적인 표현과 함께 당시 조각 양식을 충실히 반영했다. 특히 이 시기 금동과 목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상은 몇 점이 전해지고 있으나 석조로 제작된 지장보살상이 유일하고 조형적으로도 매우 우수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좌(臺座)는 불상에 비해 큰 편으로 가늘고 긴 형태이며 상·중·하대를 완전하게 갖췄다. 여의두문(如意頭文)이 새겨진 안상(眼象)과 연화문(蓮華門)이 조각됐고, 팔각형의 중대석은 석등을 연상케 하는 등 고려시대 특징을 잘 보여줘 보살상과 함께 보물로 지정됐다.

두견지장보살은 고창 선운사를 중심으로 성행했던 지장 신앙을 잘 전해주고, ‘선운사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79호), ‘선운사 도솔암 금동지장보살좌상’(보물 제280호)등과 함께 고창 선운사의 지장삼장(地藏三藏)이며, 그림이 아닌 불상으로 안치된 점이 매우 특징적으로 지장도상 연구에 귀중한 사례다. 고창군은 이번 ‘고창 선운사 참당암 석조지장보살좌상’의 보물승격으로 국가지정문화재가 모두 26점(보물 9점, 사적 6점, 명승 1곳, 천연기념물 7점, 국가민속문화재 2점, 국가무형문화재 1명)으로 늘었다.

이외에도 고창 선운사 만세루(보물), 고창 하고리 왕버들나무숲(천연기념물), 고창오거리당산제(국가무형문화재)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올해 고창 문수사 대웅전(보물), 고창농악(국가무형문화재)도 국가지정문화재 승격 신청하여 국가지정문화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고창군수는 “이번 보물 등재를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문화유산을 가득 보유한 역사 깊은 도시로 무한한 책임감과 자긍심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많은 관내 문화유산이 국가 지정문화재로 승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철의 유쾌한 오케스트라

7월 25일(목) 오후 7시 30분

개그맨 김현철의 지휘 퍼포먼스와 함께하는 유쾌하고 재미있는 클래식 이야기

■ 관람료 : 일반 3,000원 / 학생 1,500원(회원 20% 할인)

공연문의 : 고창문화의전당 (063)560-8041~2

제4회 아빠하고 나하고 사진 공모전

주최: 아이날기 좋은세상 운동본부
주관: 전북 고창군 육아종합지원센터

공모전 주제

- ▶ 가족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순간
- ▶ 아버와의 특별하고 감동적인 순간
- ▶ 센터 이용의 즐거운 순간

공모전 접수방법

- ▶ 접수기간 : 2019년 7월 1일(월) ~ 8월 30일(금)
- ▶ 출품규격
 - JPG/JPEG파일 형태, 최소 3,300×2,340픽셀이상
 - 부분별 1점 가족당 3점
- ▶ 제출방법
 - 센터 방문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제출 (<http://childcare.gochang.go.kr>)
 - 신청서 이메일 접수(gochang@daum.net)

심사내용 및 심사방법

▶ 작품대상 내역

| 작품 수 | 상 금 |
|--------|----------------------------|
| 대상 1 | 180,000원 + 아이돌 장난감 도서관 회원권 |
| 최우수상 3 | 80,000원 + 아이돌 장난감 도서관 회원권 |
| 우수상 5 | 30,000원 + 아이돌 장난감 도서관 회원권 |
| 인기상 5 | 10,000원 + 아이돌 장난감 도서관 회원권 |

* 공모전 참가 전원에게 영어요리 이용권 지급

▶ 심사방법

- ▶ 아이날기 좋은세상 실무위원의 심사를 거쳐 9월중 개별통보

문 의

▶ 고창군 육아지원센터 (063-564-0862)

2018년 기준 경제통계 통합조사 실시 알림

조사대상 : 국내에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체

조 사 명 : 경제통계 통합조사 9종

[1차] 서비스업, 광업제조업, 기업활동, 운수업, 프랜차이즈, 광업·제조업동향, 서비스업동향
[2차] 대규모복합법인·기업구조조사, 소상공인실태조사

실시기관 : 통계청·지방자치단체

조사시기 : [1차] 2019. 6. 12~7. 26. / [2차] 2019. 8. 12~9. 27.

조사방법 : 담당공무원 또는 조사원이 사업체를 방문하여 조사

· 인터넷조사방법 병행(<http://survey.ecensus.go.kr>)

사업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응답을 부탁드립니다.